

전북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작물 편중

올해 상반기 배·사과·벼 가입률 높지만 일부 품목 10% 미만... "종합위험 보장방식 전환 필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특정 작물에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전북 농가는 2만2,255호로 집계됐다. 총 면적만 6만 6,067ha에 이른다.

지난해 1만7,639호 대비 4,616호(26.1%)가 증가했다.

품목별 가입률은 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93%로 가장 높았고 사과가 75%, 벼 53%, 단감 27%, 대추 1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벼의 경우 올해 1월에 한파가, 4~5월에는 강풍 등 예기치 않은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경험한 농민들이 서둘러 보험 가입에 나서면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옥수수 and 고구마 등은 가입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많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을 늘리고 품목도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 품목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대다수 농가



비타민C가 풍부해요 14일 정읍시 정우면 샘골농원에서 농민들이 여주를 수확하고 있다. 여주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풍부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의 건실한 경영안정장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가 한 관계자는 "농작물 재

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도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재해 발생시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

다"고 했다. 또 그는 "특정위험만 보장하는 방식으로부터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원서접수 26일~8월1일

전북도가 감사관(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개방형 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현 감사관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

일까지다.

주요 업무는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결과 처분 심의 의결을 비롯해 자체감사와 시·군 종합감사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감사·법무·예산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법조계 또는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세월호 선수들기 또 25~26일로 연기

9월 이후 인양 가능할 듯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기상 악화로 잇따라 연기되면서 9월 이후에나 선체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높은 파고와 바람에 따라 지난 11일 예정됐던 선수들기를 다음 소조기인 25~26일로 연기했다.

선체 인양을 위해 배 앞머리를 약 5도(10m) 들어올리는 작업이 첫 시도였던 지난 5월28일 기술적 결함으로 연기된 이후 6월(12일, 28일)과 7월(11일)에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체 인양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기가 지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의 기상 여건이다.

안전상 선수들기가 가능하려면 파고가 1m 이내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2m 이상의 파도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수들기 작업을 미루고 있는 것 아

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선수들기 공정을 3개월 정도 지연시켜 특조위가 선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3개월이나 허비시켰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25일 선수들기가 성공하더라도 선체를 폭포 신항에 거치하는 것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의적인 인양 지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SSC(상하이 샬비지 컨소시엄)는 하루 선단 유지비용이 수억 원에 달할에도 인양을 성공하지 못하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계약돼 있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수부가 선수들기를 3개월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현장 상황과 계약조건 등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인양을 위한 핵심 공정인 선수들기를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다음 소조시기(26일경) 선수들기 및 선수 리프팅빌 설치를 완료하면 9월이라도 선체인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MBC 'PD수첩 광우병 사과방송'에 정정보도 필요 없다"

문화방송(MBC)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내보내자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로서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놓고 제작진과 MBC 측이 오랫동안 벌였던 법정다툼은 결국 MBC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승희 PD 등 당시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PD수첩 제작진 MBC 상대 손해 소송 패소 확정

재판부는 "MBC가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주지않은 소와 광우병 부분, 이례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것은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고 진실에 부합하며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핵심 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MBC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MBC가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쓴 것이 조 PD 등 제작진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2008년 4월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고 2주 뒤 제작진에게 정직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MBC의 방송은 "사고(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한미 쇠고기 협

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PD 등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책임 통감, '혼란과 갈등 야기' 등의 표현은 제작진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기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조 PD 등은 사과방송과 징계 처분으로 명예 훼손당했다며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안진수 기자

'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 징계위 19일 예정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교육부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를 오늘 오후 접수했다"며 "오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파면 조치가 결정된 당일인 지난 12일 '본인 출석 3일 이전 통지 의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매월 1회 열리는 점에 비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위한 '원포인트'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모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파면 조치하기로 하고 인사처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